동물먹이도 자판기로 팔아요

실로 예기치 않은 취재였다. 6월 중순의 한 주말, 가족과 더불어 찾은 광진구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기자의 눈에 한 정체불명의 자판기가 눈에 띄었다. 두 눈이 휘둥그레져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물먹이를 파는 자판기였다. 원숭이 먹이, 곰먹이 등을 1000원을 사용해 뽑을 수 있게 한 제품이다. 마침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보충하고 있는 관리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게 행운이다. 이 아이템을 기획해 상품화한 주인공은 정호상사의 최영환 사장. 동물사료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그는 동물원에서 먹이를 파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판기는 전용제품으로 기획 개발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담배자판기를 오버홀 업체를 통해 개조해 만들었다. 내용상품이 담배갑 사이즈 만하게 포장되어있기 때문에 랙구조를 조정해 변경상품화가 가능했다. 오래된 담배자판기를 개조해 만든 제품인 만큼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콘텐츠이지 외형이 아니다. 동물먹이를 파는 자판기로서의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현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기대이상이라고 한다.

"관람객이 뜸한 평일보다 가족 관람객이 많은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판기가 있다는 사실에 무척 신기해합니다."

동물먹이는 곰용, 원숭이 용 2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최영환 시장은 원숭이 먹이를 직접 꺼내 보이며 제품 자랑을 했다.

"영양가가 최고 입니다. 맛도 있고 영영가도 많아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맛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한번 먹어 볼 것을 권했다. 뜨악!!

"하하... 동물먹이를 인간이 빼앗아 먹으면 안 되죠." 차마 먹기가 민망해 얼른 쇠창살안의 원숭이에게 사료를 던져 줬다. 이를 낼름 받아먹는 원숭이 손길이 꽤나 숙련되어 보였다.

정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자판기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연이어 이어 졌다.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주이용 대상이다. 동물먹이를 뽑은 이용객들은 원숭이 우리로 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무척 재미있어 했다. 아이들보다 더 열을 내는 어른들도 있다. 하도 많이 먹이를 던져주나 보니 시큰둥해 하는 원숭이들도 많았다.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이를 던져주면 동물들이 영양과잉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겼다.

그래도 동물먹이자판기가 활발히 이용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사업성도 괜찮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사장은 대공원에 2대 운영을 해보고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각지 동물원에 10여대 정도의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잉어먹이, 새모이 등의 아이템 다변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원숭이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남들이 가지 않을 길을 개척해 가는 재미가 솔찮습니다. 다양한 동물먹이를 자판기에 접목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불현듯 먼 미래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음료자판기도 출시될 수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들이 동물용 음료도 빼서 던져주고, 더 나아가 동물이 직접 사용하는 자판기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오랑우탄 등 영장류는 지능지수가 높으니 훈련만 시키면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 까? 동물원에 오니 동물적인 상상력(?)이 번뜩인다. 어쨌든 놀러갔다 취재도 병행한 행복한 주말이었다.